

## 교황 마지막 메시지 “평화·화해”



“평화” 4박5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낮은 자세로 입한 4박5일... 한국인들에 큰 교훈 남겨

‘일어나 비추어라’라는 말처럼 4박5일의 짧은 일정 속에 몸소 실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기댈 곳이 없었던 국민들은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고,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시민사회, 문화·예술계도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방문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 준 성품대로 일정 동안 위안부 할머니, 새터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특히 나흘 연속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을 만났다. 공화원형식장에서,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만나 위로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다. 그가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은 온 국민은 물론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등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도 교훈을 남겼다.

교황은 급속도로 냉각돼 있는 남북한에도 무력충돌과 반목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대화로써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14일 입국 당시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는 말을 시작으로 방한 내내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마지막 미사에서 “죄 지은 형제들을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아시아청년대회 축흥 연설에서 “한 가족이 둘로 나뉜 건 큰 고통이지만 한국은 하나라는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며 “그중 가장 큰 희망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형제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는 “교종께서는 한국이 이룬 경제성장과 부를 경배하며 그 부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높은 가치를 찾아 나서라고 촉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주민들, 변두리에 있는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연민을 갖도록 호소했다”며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고 못 박아 주셨다”고 밝혔다.

강 주교는 “교황 방한으로 우리가 안은 과제와 핵심은 정치권과 지도자가 소통의 리더십을 회복해 갈등과 반목으로 찢긴 민심을 추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관련기사 2·3·5면, 화보18면

###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오후 4박5일간의 한국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 로마 바티칸으로 떠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간단한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날 환송행사는 당초 트랩에서 열기로 했지만 비로 인해 간단한 인사로 대체됐다.

환송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염수정 추기경 등 정부와 천주교 관계자 10명이 나와 배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로 돌아가는 대한항공 전세기 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다시 한 번 기도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 교황 메시지, 정치권이 ‘세월호법 합의’로 화답할 때

### 여야 오늘 일괄타결 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통과 화해의 메시지도 불구, 여야 정치권은 극도의 정치적 부재를 보이면서 7월 임시국회 하루 전인 18일까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권이 다시 한번 교황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우선 교황 메시지에 대한 감사의 뜻과 정치권의 화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교황의 행보는 연일 온 국민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면서 “교황은 바티칸으로 돌아가지만 새누리당은



알립니다

### 민선 6기 광주·전남 중국과 무엇을 할 것인가

#### 한·중 수교 22년 앞두고 21일 세미나...지방정부 중국교류 논의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인접한 중국과의 교류·교류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일보사와 (사)한중관광문화포럼,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은 한·중 수교 22주년(8월 24일)을 앞두고 ‘민선 6기 광주·전남, 중국과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인 중국 교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중국 전공관련 학과 학생과 중국교류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21일(목)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호남대학교 국제세미나실(광산캠퍼스)
- 기조발제 :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과 광주 전남의 접근 방안 왕시엔민(王惠民) 주 광주 중국총영사
- 주제발표 1 :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광주 전남의 대응전략 조철 산업연구원 기계전자팀장(산업연 배이징지일 전 수석대표)
- 주제발표 2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주 전남의 관광협력방안 박창규 전남도립대학교 호텔관광문화과 교수 김진강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주최 : 광주일보사, (사)한중관광문화포럼, 전남발전연구원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우리투자증권**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협력지사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광주 중3 학부모들 혼란**  
자사고 폐지 “내 아이 어디로...” ▶6면  
**LPGA ‘박인비 천하’**  
메이저 대회 웨그먼스 2연패 ▶20면

## 금호고속에 대한 고가매각의 ‘먹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반드시 복귀해야 합니다.

저희 금호고속의 직원 일동은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회사의 고가매각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가매각에 따른 먹튀를 용납할 수 없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의 복귀를 희망합니다.

저희 금호고속은 1946년故박인천 회장이 광주, 전남 지역민과 함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호남의 대표기업이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입니다. 금호고속은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 기업으로,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과 로열티는 다른 기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며 기업의 가치와 존립 유지는 저희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0년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그룹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고 사모펀드(PF)로의 잠시 피안수를 받아들인 이유는 2012년 패키지 거래 당시 대전체가 적정수익률을 주고 다시 그룹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수자금 역시 오래전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고속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서로가 죽게 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나 재무적투자자에 인수되는 것은 패키지 거래 당시 대전체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도 당연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직원들 역시 조만간 그룹으로 돌아간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패키지 거래 당시의 대전체인 그룹으로의 복귀와 적정수익률 지급에 따른 적정가격이 무시되고 재무적 투자자 제3자의 매각가능성과 함께 매각가격 역시 6천억원으로 보도되면서 고가매각에 따른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당시 인수가격은 3,310억원이나 사모펀드가 우리 회사에 전가한 차입금 2,200억원과 전례 없이 실시한 배당금 2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수가격은 9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10억원에 매각한 회사가 약 6배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의 가격으로 재무적 투자자에 매각될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가의 배당을 실시할 것은 지명할 일이고, 이로 인해 금호고속의 성장은 불가능하여 향후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은 물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가에 매각할 경우, 먹튀의 먹튀가 되어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금호고속의 경영상태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사이에 6천억원에 매각된다면 겨우 910억원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고 우리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이를 다시 6000억원이 넘는 고가에 매각하는 먹튀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전례 없이 200억원이라는 고가의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 회사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강요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아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회사의 당좌대출금 15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손해를 입었고 자금경색 타개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6,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외부감사인 감사비용 3,600만원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와 함께 기업 가치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막대한 무형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으로서 대표적인 항토기업인 금호고속이 저희 회사의 생존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분리되어 ‘금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 금호고속 직원 일동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와 존립 유지를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재무적 투자자나 제3자의 고가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원래의 주인인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저희 금호고속을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 같은 저희 직원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재무적 투자자나 제3자에게 고가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회사의 가치와 존립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인수와 관련된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고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4. 8. 19

금호고속(주) 구사회 대표 김우상  
부대표 김형수  
전국지동차노동조합연맹 금호고속(주)지부 지부장 김두석  
부지부장 안길홍  
외 2,152명 직원일동